

한글문화상품 개발로 국가경쟁력 높인다

한글 문화상품 · 아이디어 공모전

제4회 '한글 문화상품 · 아이디어 공모전'이 지난 3월 27일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세종대왕기념관에서 개최되었다. 제1회부터 제3회까지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한글사랑운동본부 · 한글학회 · 외솔회 · 국어순화추진회 · 한글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한글사랑운동본부가 주관하여 오던 '한글 문화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이 이번 제4회부터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단독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한글 문화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은 한글을 주제로 한 우수한 전시 및 공연을 통해 한글을 예술적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우리 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글문화상품을 적극 개발하도록 유도, 지원하여 한글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친숙하게 다가오게 하며,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자는 것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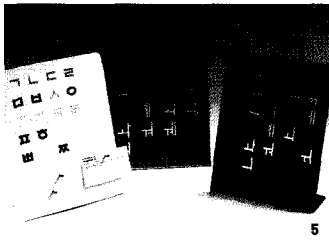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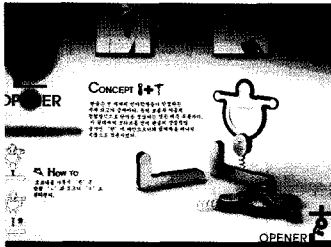
세종성왕 탄신 612돌, 훈민정음 반포 563돌의 해

올해는 훈민정음 반포를 기리는 한글날을 제정한 지 83돌이 되는 해이고, 세종성왕의 기념사업을 위하여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설립한 지도 56돌이 되는 해이다. 아울러 정부가 세종문화상을 제정한 지는 28년,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맹퇴치 공로상으로 제정한 세종대왕상은 20년째 이어오는 아주 뜻 깊은 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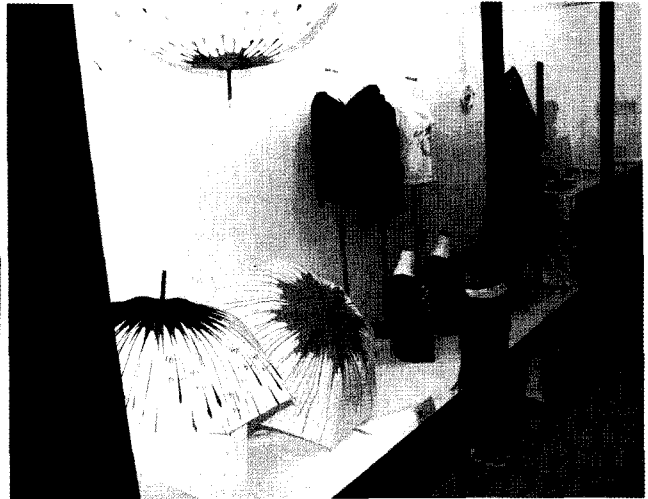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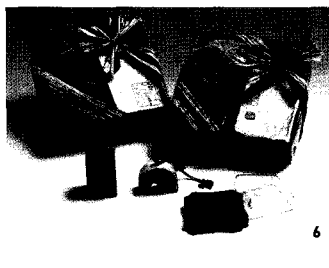
오랜 세월 동안 한자(한문)라는 남의 글자로 힘들게 문자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다가, 세종성왕의 위대한 신 문자 창제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편리한 내 글자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 글자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리는 100여 년 전 우리의 찬

란한 문화를 꽃피우기도 전에 일제에게 수난을 당하여 어둠 속에 갇히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뜻있는 선각자의 연구와 노고에 힘입어 빛나는 겨레문화를 이어올 수 있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박종국 회장은 개회사에서 "동트기 전의 새벽녘이 더욱 어둡고 아픔을 견뎌야 진주가 더욱 아름답듯이, 질곡의 역사를 짊어지고 권력에 눌러 꺾박받으며 살아온 한글이기에, 천대받던 한글이기에, 겨레말이라 입이 틀어 막혀 못쓰던 한글이기에, 우리에게겐 더욱 가슴속까지 아려오는 귀중함이 있다"라며 "이제 우리는 이 한글을 더욱 높이고 아름답게 가꾸며 우리말과 글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다.



1 한글문화상품아이디어공모전 테이프컷팅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2 박종국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3 세종대상 윤재덕 이숙경씨 4 렌더링부문 으뜸상을 수상한 김민구 조성은씨의 오프너 '한' 5 완성품부문 으뜸상을 수상한 김영성씨의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이용한 '메모보드' 6 완성품부문 으뜸상을 수상한 박은경씨의 '외국인을 위한 한글 스탬프' 7한 어린이가 호기심어린 눈으로 전시된 작품을 보고 있다.



완성품 · 렌더링 · 아이디어 부문 236점 출품

이번 공모전은 완성품과 렌더링(컨셉 그래픽), 아이디어 등 3개 부문에 총 236점이 출품되어 예년에 비해 전체 출품 수는 늘었으나 완성품 부문의 출품은 매우 저조했다고 밝혔다.

먼저 완성품 부문에서는 「세종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숙경 · 윤재덕 씨의 공동작으로 「한글 모양자」를 한글의 자음과 모음, 숫자와 기호들이 파여진 홈 안에 필기구를 넣고 따라 그리면 한글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작품이, 「으뜸상」으로는 박은경 씨의 「한글이름 스탬프」로 외국의 어떤 문자도 쉽게 표기할 수 있는 한글의 우수성을 잘 살려낸 작품이 선정 되었다. 그리고 렌더링 부문 「으뜸상」에 김민구 · 조성은 씨의 「오프너 한」이 선정됐다. 아이디어 부문 「으뜸상」은 김현태 씨의 「가나다송」이 선정되었다. 특별부문에는 초등학교생인 이현조 군이 출품한 「한글박물관 건축디자인」 안은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이 듬뿍 담겨있어서 심사위원들이 특별히 주최 측에 건의하여 「키움상」을 신설하게 되었다.

심사위원장인 류명식 교수(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는 심사평에서 “출품된 모든 작품에서 우리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을 느낄 수 있었지만 「한글을 활용한 문화상품」이라는 본 공모전의 주제에 충실하고, 참신하고 실용적 아이디어의 관점, 그리고 실험적 가치를 위주로 심사했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은 수준의 작품들이 모두 선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히며 “아깝게 탈락되신 분들은 더욱 노력하여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모든 입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국내에서 가장 뜻있고 훌륭한 한글문화상품 · 아이디어 공모전을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글자의 미적 가치 창출은 “치밀한 배려”

2010년도에도 「한글 문화상품 및 아이디어 공모전」이 그 다섯 번째 행보를 계속할 것이며, 아울러 국제학술강연회가 계획

되고 있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이 시대 우리 문화와 예술을 이끌어가는 많은 회원들이 합심하여 한글 디자인과 예술작품, 문화상품 등을 개발하는 것을 도울 계획이다. 열린 생각들을 모아 국내외를 불문하고 세계를 향해 우리 한글이 나아갈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거북선, 최초의 인쇄술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최고의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요절 등 우리 겨레에겐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쳤던 문화유산이 많다. 한글은 이러한 우리의 훌륭한 문화유산 가운데에서도 가장 뛰어난 면모를 갖추었다. 지식의 축적이란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능력 중의 하나인데, 그 지식 축적의 기초가 바로 문자라고 할 때 우리 겨레는 우리만의 문자를 만들어 써온 민족으로서 세계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업적을 남긴 것이다. 더욱이 그 글자가 과학적이고 고도의 철학을 담고 있으며 쉽고 간단하여 익히기 쉬우니 인류가 남긴 산물 중에 으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한글의 가치를 과학적, 철학적 차원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글자의 미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까지 찾을 때라 생각한다. 예술작품이나 문화상품, 생활용품 및 문화환경 등에서 한글을 아름답게 꾸미고 활용하는 일은 과학적 가치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확산시킬 수 있는 한글의 가능성을 높이 보며 새로운 가치 창출의 시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의 빛을 발할 것이다.

이번 문화상품전은 아름다운 우리글 한글을 실지로 생활에서 활용하여 자랑하며 곱게 꾸미자는 깊은 뜻이 있다. 창의적인 청소년이나 아름다움을 위해 노력하는 디자이너와 전문가들이 모두 열심히 연구하고 보듬어서 내놓은 이 작품들은, 그야말로 우리말과 우리글이 아름답게 살아 움직이도록 생명을 불어넣은 작품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작품을 통해 우리 한글이 세계로 뻗어나가 많은 사람들이 즐겨 구매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은 국어학자나 문학 작가 못지않게 훌륭한 일이다. ☞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